

3월 금통위 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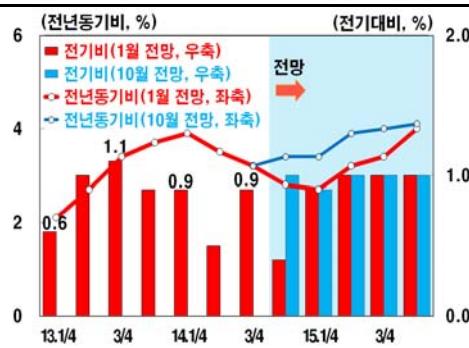
1%대 기준금리 현실화

Fixed Income 이정준
02) 3787-2627
Jungjoon.lee@hmcib.com

- 경기 하방 리스크와 디플레이션 압력을 감안할 때 3월 금통위에서의 기준금리 25bp 인하 이후 2/4분기 중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
- 따라서 채권금리 반등을 저가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가운데 경기 하방 리스크와 한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소멸시킬 모멘텀이 확보되는 시점까지는 위험관리 보다 채권 포지션 및 드레이션을 확대할 것을 권고

- 3월 금통위에서는 국내경제 성장과 물가가 한은 예상경로를 하향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준금리를 2.00%에서 1.75%로 25bp 하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결정
- 당사는 글로벌 완화정책 강화와 국내경제의 디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한은의 지속적인 대응 가능성에 무게를 두어 3월 금통위 이후에도 2/4분기 중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
 - 미국 경제 개선에 따른 미연준의 출구전략 본격화 움직임은 한은 기준금리 인하를 제한하는 부담 요소이지만, 미국을 제외한 주요국들의 경기 부양책 강화는 금통위의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 명분으로 작용
 - 아울러 올해 1/4분기 경기 부진과 향후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, 지난 1월 한은 경제전망의 하향 조정 (GDP: 3.9%→3.4%, CPI: 2.4%→1.9%) 이후 4월 수정 경제전망의 추가 하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며, 이를 반영한 올해 적정 기준금리 수준도 더욱 낮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
 - 무엇보다 저물가 심화로 실질금리 하락이 제한되어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이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 명분을 강화시킬 전망
- 따라서 경기 하방 리스크와 한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소멸시킬 모멘텀이 확보되는 시점까지는 채권 포지션 및 드레이션을 확대할 것을 권고
 - 채권금리는 국고3년물 기준으로 1.8%대 안착이 가능할 것이며, 국고3년~10년물 스프레드는 30bp 수준으로 축소될 전망

<그림1> 올해 국내경제는 지난 해 부진 이후 개선을 예상하고 있는 한은 전망을 하회할 가능성이 높아



자료: 한국은행 재인용, HMC투자증권

<그림2> 지난 해 한은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저물가 심화에 따른 실질금리 상승이 나타나고 있음



자료: Datastream, HMC투자증권

- 본 조사자료는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, 당시의 사전 등의 없이 무단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.
-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, 그 정확성이나 외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
-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